2025년 9월

인권 경영

09

울산테크노파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September 2025

국제인권동향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북한인권] '눈과 귀를 가리는 곳' -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관한 OH
터뷰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보고서(A/HRC
을 탈출한 300명 이상의 인권침해 피해자와 목격자와의 면담을 기반
을 사무소의 제임스 히난 대표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하여 북한의 인권
행했다. 히난 대표는 북한에서 최근 사형 집행, 강제 실종, 정치범 수용
한다. 아래는 인터뷰 요약본이다.

Q. 북한의 인권 상황은 어떤가?

A. 보고서의 결론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북한 내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고, 많은 영역에서 오히려
대표적인 우려사항으로는 사형 집행 건수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
이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시민들에 대한 압박도 심해졌다. 이제 외국
만으로도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외국 미디어를 배포한 경우 사형에
동안 운영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농인 국가는 북한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Q. 북한의 강제실종 피해 실태는 어떤가?

A.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약 10만 명이 넘는 강제실종 피해자를 발생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국적의 피해자도 다수 존재한다. 이들이 어떤 운명에 처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소식

[미얀마인권상황] 미얀마: 현 상황에서의 로힝야 난민 송환

국제앰네스티는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에 거주하는 약 120
려는 움직임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 식량·보건 위기, 이동 제한에 직면해 있으며, 안전하고
다는 것이다. 이번 경고는 유엔 총회가 로힝야 및 기타 소수
앞두고 나온 것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아라칸군의 실질적 통제와 새로운 억압

라카인 북부는 2024년 미얀마 군부가 패퇴한 뒤 아라칸군(
들에게 아라칸군은 또 다른 억압 세력으로 인식된다. 주민들
제한, 차별적 과세를 당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특히 청년과
들이 반복적으로 강제노동에 불려 나가는 사례가 보고되었
는 모욕적 발언과 함께 추방 위협을 받기도 했다.

인도적 위기의 심화

식량·보건 상황은 극도로 열악하다. 국제 인도주의 지원은
차단하면서 사실상 봉쇄 상태이며, 주민들은 오염된 물로 인
황에 직면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라카인 북부가 "기아
했다. 최근에는 군의 공습으로 라카인 학생 19명이 숨지는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소식

[인종차별] 중국 '민족 단결과 진보 촉진법'으로 소수민족 탄압 심화 우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심의 중인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 단결과 진보 촉진법)'이 통과될 경우,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 동화와 사상 통제를
고 경고했다. 이 법안은 교육, 종교, 문화, 언론, 인터넷 전반에
소수민족 언어권을 사실상 약화시키는 조항들을 포함한다.

소수민족 언어권의 축소

1984년 「민족구역자치법」은 소수민족의 언어 사용과 발전 권
시 보통화를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유치원 단계부터 보통
미 티베트, 신장, 내몽골 등지에서 모국어 교육이 대폭 축소된
된다.

사상·생활 전반에 걸친 통제

법안은 공공시설, 관광지, 건축물 등에 중국 문화 상징을 부각
량·국경 안보 정책에도 '민족 단결' 관점을 반영하도록 한다(제2
산당을 사랑하도록" 미성년자를 교육할 의무를 부여하고(제20
화'라는 명목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제40조).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소식

[선주민인권/기업과인권] 캄보디아 선주민을 옥죄는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덫

캄보디아 선주민들을 대상으로 약탈적 소액대출을 매개로 한 토지 강제 침탈과 인권 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캄보디아의 소액대출은 원래 빈곤층의 자립을 돕는 수단으로 설계되었으나, 선주민 공동체에는 오히려 토지 상실과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약탈적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약탈적 대출의 메커니즘

- 언어 장벽과 정보 비대칭: 대출 서류가 대부분 크메르어로 작성되어 선주민들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 틈을 이용해 대출 담당들은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권유·강요했다.
- 담보로 사용된 '소프트 타이틀': 선주민의 공동 토지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비공식 문서인 '소프트 타이틀'을 담보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공동체의 토지가 금융권에 저당 잡히게 되었다. 이는 집단 토지 등록 절차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 강압적 추심과 토지 매각 압박: 대출 담당자들은 반복적인 방문, 협박, 심지어 지방 당국의 개입을 통해 대출자들에게 토지를 팔도록 압박했다. 결과적으로 선주민들은 토지를 잃고 생존 기반을 상실했다.

〈바로가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동향 2025년 9월호